

군법당 찾아 신행집 보시·회향

석불선양회 백골·열쇠·비룡부대 위문

15일 강원도 철원군 백골부대 사단법당인 호국삼불사. 법회를 마치면 서둘러 돌아가기에 바쁘던 장병 불자들이 오늘은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는다. 한국석불선양회 회원들이 이들을 위문하러 찾아 왔기 때문이다.

석불선양회 이귀인 회장과 이명숙 회원, 문기자 회원이 정성껏 준비한 간식과 현대불교 신행수기 모음집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을 한권씩 나누어 주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재미있게 불교 공부를 하라고 이 책을

고른 것이다. 벌써 몇몇 장병 불자들은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눈치다.

이번 법회를 보고 전역을 한다는 김종명 병장은 “군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드문데, 불자들이 멀리서 찾아와줘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워한다. 진솔한 내용으로 가득찬 신행수기모음집은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날 석불선양회는 백골부대를 비롯해 5사단 열쇠부대, 25사단 비룡부대를 방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

병 불자들에게 <부처님, 어떤복...> 300여권 전달했다. 이번 법보시는 석불선양회 회원들이 군불자의 신심을 고취하기 위해 십사일반으로 회비를 모아 마련한 것이다.

이귀인 회장은 “군 불자들을 위한 위문법회를 갖고 법보시를 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 법당을 자주 찾은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3월 발족된 석불선양회는 법당에서 예배와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방치된 채 훼손되는 전국의 석불들을 찾아가 법회를



◊석불선양회 회원들이 15일 최전선에 있는 백골부대 군법당을 방문, 신행수기 모음집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를 전달하고 있다.

열고 부처님께 예배와 다례를 올리며 신심을 쌓아왔다. 이와 함께 불상 주변 정리 및 청소, 석불 관련 강좌 개최, 자연보호 운동, 108배 참선, 군

부대와 복지관 등을 방문, 겨울 철새 모이주기 등을 꾸준히 펼쳐왔다. (016)267-7945.

철원= 강유신기자

실상사 화림원 금강경결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복신앙·신비주의 빠져 구체적인 삶에 대응못해”

“한국불교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현재 믿음이 세간에서는 기복불교로 출세간에서는 신비주의로 빠져 구체적인 삶에 응답을 못하고 있다”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의 지적처럼 네 번째 논쟁의 핵심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였다. 14일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남원실상사 화림원 강당에서 열린 논쟁은 자칫 자구해석으로 그칠 수 있는 논의를 현실과 결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각목스님은 발제를 통해 “초기 경전에서 믿음으로 쓰이는 단어는 사다(saddhā), 빠사다(pasāda), 아디목카(adhimokkha) 세 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 ‘사다’는 우리말의 ‘신뢰’라는 용어에 해당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생기는 신뢰감 그것이 초기불교에서 나타나는 사다의 근본의미”라고 정의내렸다.

은 알고 믿는 것보다 맹목적으로 믿는 경향이 많다”며 “제가불자들이 할 수 없는 것(깨달음)을 스님이 대신하고 제가불자들은 스님에게 의존하여 불교를 믿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양에서 왔다는 한 스님은 “우리가 부처라는 참된 믿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특히 스님들의 이야기를 제가불자들이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도법스님은 “잘못된 결과가 나타났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한국 불교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현재 믿음이 세간에서는 기복불교로 출세간에서는 신비주의로 빠져 구체적인 삶에 응답을 못하고 있다”고 말해 자칫 자구 해석으로 그칠 수 있는 논의를 현실과 결부시켰다.

익산에서 왔다는 한 스님은 “한국 불교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국

‘맹목적 믿음’ 가진 재가불자들 많아 합리적인 생각도 절대화 되면 ‘相’

또 “빠사다는 신뢰를 가지거나 법을 이해하고 사물을 바르게 판단해서 오는 마음의 편안함, 환희로움, 밝음, 분명한 그리고 이런 분명함에서 오는 의심 없음, 마음의 편안함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사다와 구별하고, “아디목카는 논서에서 보면 믿음의 요소로 나타날 때는 신뢰(사다)와 분명함(빠사다)에 바탕한 확신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며 세 가지로 구분했다.

남원에서 왔다는 한 재가불자는 “각목스님이 말하는 믿음이란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생기는 신뢰, 순수한 믿음, 확신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도법스님은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는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먹는다”며 “와서 있는 그대로를 보려는 불교의 가르침과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또 “부처님이 그랬으니까 큰 스님이 그랬으니까 라는 경외심에서 비롯된 믿음이 불자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산에서 왔다는 재가불자는 “도법스님의 지적처럼 재가불자들

민 전체의 수준이고 기복불교도 부처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순천에서 왔다는 재가불자는 “비록 재가자들이 비불교적인 믿음으로 절에 와도 스님들이 제대로 지도하면 된다”며 “한국 불교 문제는 바로 스님들의 문제”라고 재반박했다.

포항에서 왔다는 한 재가불자는 “많은 수의 미국 젊은 이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것처럼 한국 종교의 공동화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불교의 무아사상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21C 새로운 문화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강스님은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은 믿음과 결부되는데 그 가르침이 참되다는 상을 일으킨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변상과 금강경에서 참되다는 상은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님은 ‘생각은 낼 수 있지만 집착으로 나가면 안된다’며 ‘합리적인 생각도 절대화되면 상’이라고 결론 맺었다.”

“마산에서 왔다는 재가불자는 ‘도법스님의 지적처럼 재가불자들

남원= 남동우기자

청담사상연구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



◊청담사상연구소 개원기념 학술세미나가 17일 진주산업대에서 개최됐다.

있거나 송장에게도 서너 시간의 법문을 마다하지 않았던 참다운 수행자였습시다.”

17일 진주산업대학교 학생회관내 종합관에서 열린 ‘청담대중사의 생애’라는

현상의 원인은 마음에서 발생되어 마음으로 종결한다’는 마음 사상을 되살리는 순간이었다.

청담문화재단, 청담문화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청담 스님 탄신 100주기를 맞아 진주산업대학교 내에 청담사상연구소를 열면서 가진 행사로 청담사상연구소 고문 해성스님등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 청담스님의 유지를 기렸다.

목정배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총장은 ‘청담대중사의 마음 사상’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모든 상대는 적이 아니고 보살이라는 사상과 너와 나라는 일체 생각을 떠난 평등을 실천해야 한다는 스님의 원력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담사상연구소 소장 김기원 교수도 “청담 스님의 사상과 문학을 선양하는 사업을 통해 마음사상이 근간이 되는 가치관 정립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동화사·대구사원주지련 화합

성도절법회 공동봉행 합의

부처님 성도절 법회가 대구지역 불교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불교계의 양대 축이면서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던 팔공산 동화사(주지 지성스님)와 대구사원주지련연합회(회장 원명스님)가 성도절 법회를 1월 10일 오후 2시 대구체육관에서 공동 봉행키로 최근 합의했다.

동화사의 한 관계자는 “성도절 합동법회는 근래 들어 동화사와 사원주지련연합회 간 수차례의 불합점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

려지게 된 것”이라며 “지역불교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법회 개최는 동화사와 사원주지련의 갈등의 중심에서 있던 대구불교회관의 건립문제가 지난달 사원주지련연합회에서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옛 태왕본사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서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풀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규기자

청담사상연구소 개소

17일 진주산업대...사상조명 세미나도

“수행불교, 실천불교, 생활불교를 제창했던 청담 스님은, 단 한사람이

는 현상 스님(전 중앙승가대 총장)의 주제발표는 청담 스님의 삶과 ‘모든

지역불교 복지단체에

대학생들 ‘사랑의 가구’

대학생들이 학과 실습시간에 제작한 ‘사랑의 가구’를 지역 불교 복지단체에 기증했다.

경산대 실내건축학전공 학생 42명은 4개월간 매주 목요일 전공과목 실습수업 시간에 제작한 2천여 만원 상당의 가구를 18일 불교사회복지회(대표 지도스님) 치매노인센터에 기증했다.

기증된 가구는 개인수납장, 장식장, 문갑, 진열대 등으로 경산대 학생들이 지난 9월부터 불교사회복지회 노인복지시설을 수시로 방문, 노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가구 선제공



◊경산대 황병태총장이 18일 불교사회복지회장 지도스님에게 사랑의 가구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농일 장소 실측, 기능성을 고려한 디자인 등을 통해 100여일만에 걸쳐

제작된 것이다.

박원규기자

보림사 주변에 산림욕길

휴양쉼터 24만평 조성

천년고찰 장흥 가지산 보림사 일대 24만평에 자연 속의 휴양 쉼터가 조성된다.

전남 장흥군은 12일 ‘사찰주변 50년 이상된 비자과 녹차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는 천연산림과 사찰 문화유산을 연계하는 복합적 문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장흥군은 내년 2월까지 3억8천여만원을 투입해 2.4km의 보림사와 연계한 산림욕길을 개설하고 전망대, 자연학습장, 체육시설, 각종 휴게시설 등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이에 앞서 열린 가야불교문화원 건립 기념법회는 은하사 주지 대성스님, 송은복 김해시장 등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경과보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봉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덕일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불교가 이 시대 우리 민족의 중심사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가야불교 문화원 건립을 위한 성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기자

대구 우수학교법인에

진각종 회당학원 선정

진각종 회당학원이 학교법인 경영평가에서 대구지역 우수학교법인으로 선정됐다.

선정한 5개 우수학교법인 중 우수법인으로 선정돼 상장과 함께 2천여만원의 지구노력지원금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구 교육청은 사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2년간 대구지역 학교법인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박원규기자

“저보고 절하는데 미쳤대요”

동두천 불면암 이호진 거사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절하는데 미쳤대요” 108배 정진을 어떻게 하루도 빠짐 없이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인가 깊은 초발심의 동기가 있을 것 같았다.

“10년전 이유없이 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어요. 온 몸에 기운이 없어지고 정신이 몽롱해 지는 현상이 오랫동안 계속돼 직장을 더이상



유형업종사자 대상 포교할 계획

진 거사(57)는 불면암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절도사(?)’다. 모든 신도들이 그의 절 수행에 혀를 내두른다. 그것도 혼자서만 하는게 아니다. 요즈음은 부인 박미덕 보살(52)과 딸 이다영(28), 아들 이승영(26) 등 네 식구 모두가 거의 2~3일에 한번 꼴로 절에 나와 108배에 걸친 절수행한다. 스님들도 매일 하기 어려운

다닐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마로 가정은 점점 더 어려워져 깊은 시름에 잠겨져 있는데 주변에서 절에 한번 나가서 기도해 보라고 권하더군요.”

이 거사는 집 근처에 있는 불면암 주지 스님을 찾아갔다. 대명 주지 스님의 권유로 108배부터 시작한 절수행이 이제는 불면암 신도들이 보고

따라할 정도로 능숙해 졌다. 5년이 지나자 아픈 몸도 씻은 듯이 나았고, 현재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할 만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자신의 수행 체험을 바탕으로 이거사는 요즈음 동두천 불면암과 서울 상계동 포교당인 미타선원을 오가며 사찰을 처음 찾은 초발심자들에게 조언을 해준다. 실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도들을 상담해 주다보니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는 의지처럼 생각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2년과정으로 생긴 미타불교대학에서 매주 화요일이면 기초교리와 경전을 공부한다. 또 풍부한 지식을 실천행에 옮기기 위해 신도들과 함께 동두천 일대의 무의탁 노인 돌기 운동을 앞장서 펼치고 있다. 내년에는 남양주 시까지 확대해 노인 한분과 1가족이



◊이호진 거사는 거의 이틀에 한번씩 가족들과 함께 사찰에 나와 108배 정진을 한다. 사진 왼쪽부터 딸 다영, 부인 박미덕 보살, 이호진 거사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두천 일대에는 지역 특성상 유혹업에 종사하는 러시아와 필리핀 여성들이 많습니다. 새해부터는 주지 스님과 함께 이들의 포교에 진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찰 주변에 주말농장을 운영해 신도들이 언제든지 마음놓고 찾아와 농작물도 재배하며 수행할 수 있도록 꾸밀 것입

추천의 말

대명스님 불면암 주지

이 호진 거사는 절하기 수행에 있어서 우리 절 신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에 서 또는 사찰에서 5백배 이상 정진하는 이 거사의 성실한 모습은 스님인 저도 감탄할 정도입니다. 신도들 또한 이 거사를 좋은 도반으로 믿고 따릅니다. 이 거사는 절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묵묵히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묵묵히 남을 돕는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사찰에 나와서도 온갖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성실성을 불자들이 본받았으면 합니다.

“절에 미친 이 거사가 새해부터는 포교와 도량 꾸꾸기에 ‘미쳤대요’는 야심찬 각오를 밝힌다.

동두천= 김주일기자